

아무리 잔혹해도, 반복해도 동물을 키울 수 있는 학대자

Writer 채일택(동물자유연대)

Editor 손유미

동물입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시깸스'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보내 온 사진과 영상 속 시깸스는 흰 털과 검은 털이 섞인, 그리고 츄르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어찌 보면 흔하디흔한 길고양이였습니다. 다만 남다른 애교와 사교성 덕분에 동네의 마스코트로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깸스가 하루아침에 차가운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시깸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루 종일 상주하다시피 하는 동네 미용실에서 자취를 감춘 6월 25일, 마을 주민들이 아무리 찾아보고 불러봐도 나타나지 않아 걱정하던 차에 미용실 주변에서 눈에 띈 의문의 핏자국. 놀란 가슴에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미용실 CCTV를 돌려보던 이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경 동네 주민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영상에 등장하더니 거침없이 고양이에게 다가갑니다. 이어 바닥에 무언가를 격하게 패대기치기를 수차례. 그 과정이 그림자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26일, 그렇게도 애교 많고 살가웠던 시깸스는 마을 한쪽 풀숲에서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26일 밤 11시경 시깸스를 죽였던 범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양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하천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의심스럽게 본 마을 주민이 뒤를 밟았습니다. 곧 인근 하천에 다다른 학대범은 물가에 검은 봉지를 투기했고, 놀랍게도 그 봉지에서 또 다른 고양이의 사체가 나왔습니다. 28일 동물자유연대가 사체를 수거해 지자체에 부검을 요구했고, 그 결과 우측 흉부 및 두부 피하 출혈, 두개골 골절 및 함몰, 뇌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깸스와 유사한 방법으로 죽였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결국 학대범은 27일 밤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제보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고양이가 먼저 자신을 물어 핏감에 죽였다고 하며, 오히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고양이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발견된 사체에 대해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다 CCTV 영상이 나오자 인근에서 죽은 사체를 주워, 이를 하천에 버렸을 뿐이라고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가 나오자 그제야 분양을 받아 죽였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반복적이면서도 잔혹한 범행 방법, 체포 이후에 보인 뻔뻔함과 뉘우침 없는 태도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두 마리의 고양이를 연이어 죽인 이튿날(27일) 학대범이 핑크색 이동장을 든 채 유유히 시깸스가 살던 미용실 앞을 지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학대범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이제 갓 젖을 떼는 것으로 보이는 새끼 고양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는 당당하게 “어제 수원까지 직접 분양자의 집을 찾아가 2만 원에 분양받아 왔다”며 “평소 고양이를 좋아하고 항상 키우고 싶었다”고 말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자칫 새끼 고양이마저 추가적인 학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과 지자체 담당자가 어르고 달래 새끼 고양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내 것 돌려달라” 요구하는 학대범, 고양이 추가 분양 시도
학대범의 손으로부터 간신히 벗어난 새끼 고양이는 동물자유연대로 옮겨져 ‘삐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워낙 활발한 성격 때문인지 처음 와보는 곳이지만 낯설음도 잠시 먼저 보호 중이던 다른 고양이들에게 장난을 치는 등 똥꼬발랄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삐삐에게는 청천벽력파도 같은 전화가 사무실로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이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학대범이었습니다. 그는 삐삐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기소로 법원에 사건을 넘기자 대담함을 넘어 적반하장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화성서부경찰서가 7월 5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불과 3일 만인 8일 500만 원의 구약식청구로 수원지방법원에 넘겼습니다.

“**(학대에 대한) 처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론몰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물건 가지고 있는 거 불법인 거 알고 있나요.**”
“**만약에 (새끼 고양이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법적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고양이를 직접 찾아서 가져가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딴니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학대범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법적 절차 등을 운운하고 겁박하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물자유연대가 고양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단호히 대처하자 그는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분양 사이트, 밴드,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고양이 분양을 수차례 시도 중입니다. 특히 아픈 고양이들을 노리고 있는데, 병이나 상해가 있는 경우 분양이 잘 안 돼 상대적으로 쉽게 데려올 수 있고, 또 학대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경우에도 핑곗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학대범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 등이 노출되자 사는 지역 등을 속이며 접근해 캣맘들의 SNS에 주의를 요하는 게시물이 도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 제재 없는 학대자 동물 소유
그렇다면 학대범에게 ‘삐삐’를 돌려줘야만 할까요?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걸까요? 아쉽게도 현 법체계 안에서는 ‘삐삐’와 같이 동물을 학대한 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더

라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학대를 당한 피학대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4조 제3항과 그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해 보호 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소유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자가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 피학대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뽀뽀의 경우에도 범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습니다. 제3의 고양이를 분양받아 데려오는 것 역시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아무리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학대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격리시키거나 향후 키우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부재합니다. 반면 학대 동물의 압류 및 몰수, 소유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테네시주, 일리노이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는 동물을 학대했을 때 해당 반려동물을 법원이나 법집행관이 점유하고 압류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때는 몰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로 유죄를 받은 자에 대해 이후 동물을 소유 또는 점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등을 위한 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3년 문정림·심상정·진선미·한명숙 의원 등이 2014년에는 민병주 의원이 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한정애 의원이 위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격리 조치의 당사자인 지자체 보호소의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농해수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시검스 사건을 비롯한 동물 학대 사건을 접하며 활동가들은 매번 동물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 필요성을 절감해 온 합니다. 지금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가 이루어져도 동일인에 의한 학대 행위의 발생이 빈번하고,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학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곤 합니다.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동안 피해를 당하는 것은 결국 동물들입니다. 애꿎은 동물들은 이번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과 같이 동물 학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채일택

동물과 인간의 조화를 꿈꾸는 비판적 낙천주의자.

